“광주청소년 문화소양 책임진다”

동구청소년수련관 개관, 미래세대 위한 첫걸음



광주지역 불교계 최초로 수탁한 청소년시설 동구청소년수련관이 이를 기념해 개관식을 열고, 청소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광주파라미타청소년연합 광주지부(지부장 소운, 관음사 주지)는 3월 21일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동구청소년수련관 2층 체육관에서 수탁기념 개관식을 개최, 청소년 포교를 위한 첫 여정에 나섰다.〈사진〉

출발을 축하하는 행사에는 원일 스님(정광학원 이사장), 보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혜공 스님(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 대표),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연구실장)을 비롯해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강기정 前국회의원, 김성환 동구청장,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난타, 성악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 △취임식 △축사 △동구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기념 떡 절단식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이날 도제 스님(길상사 주지)과 이동배 교법사(정광고등학교)는 10년 가까이 파라미타청소년연합 광주지부를 운영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소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많은 분들이 이런 열망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해 청소년들을 위한 실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취임한 강금단 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성과 엄마의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사회부터 승가까지 자비사상 전파”

부산 문수사,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 설립

3월 29일, 창립기념법회 봉행
재가노인시설 운영 시작으로
승려노후복지 요양시설도 계획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노인을 비롯한 부산지역민과 승려복지를 동시에 아우를 전천후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이 탄생했다.

부산 문수사(주지 지원)가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 · 이하 문수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로 불타의 자비 사상을 전할 것을 밝혔다. 문수복지재단은 오는 3월 29일 오후 2시 30분 유엔평화기념관 3층 컨벤션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문수복지재단은 21일 기자간담회을 개최하고 재단 설립 취지와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사단법인 위드아시아를 통해 해외 구호활동 및 대북 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역할을 담당했으나 사단법인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금 더 다양한 분야, 특히 국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에서 힘을 기울이는 승려복지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역에서 도움을 줄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수복지재단은 먼저 국내 복지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복지사업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문수복지재단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지역봉사사업, 노인인식개선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향후에는 △아동복지사업(보육시설 운영) △노인복지사업(노인전문복지관 · 치매전담노인시설)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복지사업(사회복지관 운영 · 장학사업) △다문화복지사업 등 국내에 복지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지원 스님은 “고령화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적극 대처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며 “노인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존경 받는 새로운 노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수복지재단은 승려복지시설을 마련해 승가공동체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지원 스님은 “종단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승려복지를 위해 함께 발맞출 계획”이라며 “스님들은 출가수행자다. 마지막까지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노후에도 정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복지재단은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한 전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선방 및 법당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승가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할 요양시설을 건립할 것을 밝혔다.

문수복지재단 설립은 3년 전 복지 전문화를 위해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이사들의 발의로 논의 됐으며, 이후 올해 2월 2일 설립 허가를 정식 인가 받았다. 현재 이사진은 대표이사 지원 스님, 이사 혜총 스님(대각회 이사장), 상임이사 연담 스님(제주 천제사 주지) 등 일반이사 6명 및 외부이사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지원 스님은 “스님 외 다른 이사들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 복지전문가로 전문성을 높여 조직됐다”며 “앞으로 복지 전문으로 활약할 문수복지재단에 관심과 응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3월 19일 김제 금산면 원평장터에서 열린 3.1만세운동 재현행사. 이 행사에 금산중 · 고교생 50여 명이 동참했다.

원평장터 울린 학생들의 “대한독립만세”

금산중 · 고교생 50여 명, 3.1만세운동 행사 동참

전북 유일의 불교종립 학교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 금산중 · 고등학교(교장 조영석)가 김제시 금산면 원평장터에서 3.1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가했다.

3월 19일 김제 최초 만세운동 발생지인 원평장터 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금산중학교 40명, 금산고 10여 명이 참가해 3.1절 노래 제창과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 만세운동 재현극을 공연했다.

이날 학생들은 원평장터에서 만세운동 거리 행진을 비롯해 나라사랑 페이스페인팅과 캘리그라피, 손태극기 만들기 체험행사에 참여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애국정신의 모범을 보였다.

조영석 교장은 “금산면 지역사회에 민족수난사 극복을 위한 행사가 크게 열렸다. 학생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불교종립학교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원평장터는 1919년 음력 2월 19일, 장날 오후 6시에 독립투사 9명(배세동 · 전도명 · 전도근 · 전부명 · 이병섭 · 김성수 · 전천년 · 이완수 · 고인옥)의 주도아래 장꾼들과 김제지역 최초로 일제 탄압에 항거하는 3 · 1만세 함성이 울려 퍼진 곳이다. 광복군 이종희 장군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활동 근거지로도 유명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봉축행사, 4월 21일 대단원 시작

반야심경燈 점등… 봉축기원탑 대폭 보완

올해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일정 윤곽이 드러났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3월 19일 전주 수현사 2층 강의실에서 봉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봉축일정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부위원장)을 비롯한 국장 스님들과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대표, 전주 · 완주 지역사찰 주지스님을 비롯해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봉축위원회는 봉축위원과 집행위원회 등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약 1억여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봉축위원회는 봉축행사 주제를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로 정하고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도내 각 지역에서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4월 21일 전주역 앞 마중길 봉축 반야심경 등 점등을 시작으로 5월 초 전북어린이 큰잔치, 35사단 연등제, 임실 6탄약창 연등제, 전북불교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 등이 각 지역에서 열린다. 5월 19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연등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북봉축위원회는 전북지역의 각 도시 주요도로에 봉축 연등을 설치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전 도민과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로 봉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봉축 기원탑을 대폭 보완해 전주역 앞 마중길 LED 터널 양쪽 약 1.5km 구간에 반야심경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불교문화행사로는 전주 수현사 큰법당에서 불교합창제와 덕진공원에서 어린이 잔치,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전북 주요도시에서는 시차를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크고 작은 연등축제가 봉행된다. 또한 각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와 교도소 방문 등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리게 된다.

아울러 전북봉축위는 전주시의 청년 신용불량자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신용회복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북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통해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되새기는 경건하고 여법한 봉축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불청부산지구 “청소년 포교 마중물 앞장”

4월 7일 청소년 창립법회… 문화활동도 확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가 올해 청소년 계층 포교를 위한 중점사업을 펼친다.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유진상)는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법회와 각종 문화축제를 연다. 먼저 대불청부산지구는 매월 1 · 3주 토요일마다 부산지구 사무국에서 청소년법회를 봉행한다. 대상은 14~19세 청소년이며, 법회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청소년에게는 봉사점수가 부여된다. 창립법회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아울러 대불청부산지구는 3월 15일 ‘2018년 해운대구 청소년 어울마당 및 동아리활동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대불청부산지구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을 주관하고 청소년 포교를 위한 다채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불청부산지구는 해운대 일대에서 청소년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재능과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와 동아리 부스를 설치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6회에 걸쳐 행사를 마련하며, 주제는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청년문화 시상식 △청년 성년이 되다 △청년문화운동회 등이다.

유진상 회장은 “현재 어린이 법회는 사찰 내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해 청소년기를 보낼 모임이 전무하다”며 “향후 불교지도자로 성장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법회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자 문화교류의 장을 담당하게 됐는데 참가 학생들이 불교를 더 친숙하게 여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귄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